

##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(KrIGF) 워크샵 보고서

작성자 : 이동기(UNIST)

세션명	워크샵1. Youth Session: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				
일시	2019.7.5.(금) 11:00~12:30		장소	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	
참석자	사회	이동기(UNIST)		발제	이나경(계명대학교)
	패널	민무홍(고려사이버대학교)		구부승(데오릭스)	
		김민성(방어진고등학교)		조윤이(부산여자고등학교)	
		최선호(경북대학교)			
플로어	약 20명 참여				

제안내용	<p>인터넷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 다양한 세대에게 문화로 정착되었음.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세대 간의 격차를 넓히게 되었음.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세대별 경험과 의견을 듣고자 이번 세션에서 총 3가지의 주제를 제안하고자 함:</p> <p>1) 일상에서의 인터넷 다양한 환경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과거와 비교했을 때의 인터넷의 역할 흐름 변화 및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온도차에 대한 토론을 진행</p> <p>2)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정보 노출과 인터넷 의존 제2의 자아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개인 기록을 남기는 것과 관련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성 및 잦은 인터넷 활용에 의한 의존도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</p> <p>3)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 청소년들의 경우 카카오톡 보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선호하는 것처럼, 일반 기성세대와의 비교 시 눈에 띄는 차이점을 띄는 고유한 인터넷 문화 사례를 공유하고 세대 간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</p>
요약내용	<p>◎ 인터넷에서 파생된 특성은 연결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, 활용 방법 및 개인의 이해도에 따라 삶의 짐을 향상하거나 동시에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임을 인지하고,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함</p> <p>◎ 세대별 인터넷의 도입 환경 및 사용 과정이 다르므로, 각 격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정책적인 교육 및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</p> <p>◎ 인터넷 사용이 가지고 오는 잠재적인 문제점의 경우, 개인 및 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안에 지속적인 모색이 가능함</p> <p>◎ 인터넷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사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적 결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, 이는 제도적 개선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벌어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음</p> <p>◎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터넷 거버넌스와 다양한 세대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, 앞으로 Youth Session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나누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함</p> <p>◎ 대한민국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청(소)년들의 참여 및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음</p>

### 논의 세부 내용

◎ 인터넷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술에서 확장성과 발전성을 보이며 문화로 정착하는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,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또한 인터넷 기반의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변화를 진로 교육에서 체감하고 있음

◎ 스마트워치 및 시스피커와 같은 기술적 발전으로 삶의 질은 향상되었음을 느끼나, 개인이 막연하게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부가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

◎ 인터넷에서 얻는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은연 중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환경에서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는 있지만 그 동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을 느낌

◎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과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, 실제로 많은 기술을 익히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었음

◎ 온라인에서 사용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하며 더 나은 콘텐츠를 재생산할 수도 있었고, 이에는 경험 공유 시에 필요한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적 역량이 뒷받침됨을 알 수 있음

◎ 인터넷의 연결 가능성은 때로는 온라인에서 특정인의 연락처를 쉽게 찾아낼 수 있고, 쉽게 공유되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, 범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

◎ 다양한 콘텐츠는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지지만, 반대로 편향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균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짐

◎ 인터넷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자각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, 실제로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위해 인터넷에 공개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에 의도적으로 마스킹처리를 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더욱 보완이 필요함

◎ 이 시대에 사용자들의 정보는 새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근본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, 이차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기업 모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(예: 현재 소셜 미디어에서는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글 작성 방법은 친절하게 알려주지만, 정보의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있음)

◎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무심코 누르던 '동의' 버튼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지를 인지하는 개인은 많지 않은 것처럼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필요함

◎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표준 시각은 비교적 부정적이며,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명백하게 부족함으로 개인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전반적인 환경과 인프라에 대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음

◎ 실제로 인터넷 뱅킹이 발전하더라도, 일반 청소년들은 학교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문을 닫는 4시 이후에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함

◎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계좌 개설을 위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지만, 아쉽게도 사회 속에서 학생 시각에서의 배려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며, 이는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부족하였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

◎ 과도기적인 방법인 휴대사용의 제한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안겨주므로, 무조건적인 차단 혹은 제한보다도 보다 합리적이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하며 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

◎ 제안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간협의모델에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야하며, 의견을 내는 것에는 성별, 나이,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세대와의 만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인터넷이 발전할 수 있음